

아동학대 시대의 어린이신학*

박영식

(서울신학대학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색동회가 1923년 세계최초의 아동 인권선언을 채택한 이후 제94회 어린이날을 맞아 보건복지부는 2016년 5월 2일 <아동권리헌장>을 채택하고 선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¹⁾ 아동권리헌장은 총 9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1) 생명 존중과 가족으로부터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2)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인종, 종교, 학력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 본 논문은 2016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논문임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아동권리헌장’을 치면 이 날 행사에 대한 안내와 <아동권리헌장>의 배경과 취지, 내용을 볼 수 있다.

않을 권리, 4) 개인생활이 보호받을 권리, 5)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위해 지원받을 권리, 6)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 7)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8) 휴식과 여과,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9)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아동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사실 어린이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것과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일찍 ‘어린이 날’과 아동인권선언을 제정한 것도 놀랍다. 하지만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미숙하고 유치하다. 더구나 올해 2016년은 신년 벽두부터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및 유기 사건을 비롯하여 자기 딸을 폭행으로 죽게 한 후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 등 상상을 초월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됨에 따라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느슨하고 미천한 우리의 인식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린이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어리고 미성숙해서 늘 훈계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일 뿐인가? 아니면 어른들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하지만 어린이는 어른과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아동권리헌장>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의사표현과 선택의 결정권은 종교 선택과 종교적 의사표현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다. 아동학대와 인권 유린의 현실에 직면하여 기독교 신학이 반성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서구의 전통적인 신학이 여성과 흑인과 제3세계의 사람들에게 그동안 억압의 명예가 되었듯이, 기존의 어른들의 신학이 어린이의 인권을 생각하기 보다는 행여 아동학대를 방조하거나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기능하지는 않았는지 질문해 볼 필요도 있다.²⁾

아동학대와 아동인권 유린의 시대에 직면하여 오늘날 기독교 신학은 어린이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근원적으로 수행해야 할 작업은 무엇인가? 어린이에 대한 근원적인 사고의 변혁을 위해 기독교 신학은 어린이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며, 어떻게 어린이를 생각해야 할 것인가?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 신학에서 각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어린이신학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어린이를 신학의 주체로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독일의 종교교육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어린이신학의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린이신학의 가능성과 어린이신학이 기존의 어른들의 신학에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칼 라너가 일찍이 제안한 어린이에 관한 신학적 본질규정을 통해 신학적 관점에서 어린이는 누구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나름대로 어린이의 관점과 시각에서 어린이를 염두에 두고 신론의 변혁을 시도한 이신건의 교의학적 작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각기 상이한 형태로 전개된 이러한 어린이신학적 작업들은 어린이를 신학적 사유의 주체와 사유의 주체로 참여시킴으로써 그동안 배제되었던³⁾ 어린이의 목소리를 어린이의 관점에서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학대와 인권 유린의 시대에 기독교 신학은 어린이신학을

2) 본 논문에선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죄론에 입각하여 아동의 체벌과 학대가 묵인되거나 징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부각하여 아동의 잘못에 대해 엄격하게 다뤘던 역사적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Marcia J. Bunge ed. *The Child in Christian Thought* (Grand Rapids/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1) 참조.

3) 번지에 따르면, 20세기 들어 어린이와 관련하여 철학,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종교심리학 등에서 여러 저술이 출간되었지만 신학분야의 저술은 여전히 드물다. 기껏해야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가정에서의 어린이 양육에 관한 고답적인 내용을 담은 책들뿐이었다. *Ibid.*, 4.

통해 어린이에 대한 근원적인 사유의 전환과 신학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II. 어린이신학의 가능성과 방법론

독일 종교교육학계에서는 90년대부터 ‘어린이신학’(Kindertheologie)이라는 이름 아래 어린이와 관련하여 신학적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작업들이 전개되어왔다.⁴⁾ 1992년에 독일의 가톨릭 종교교육가인 안톤 부허(Anton Bucher)는 “어린이와 하나님의 의로움 — 어린이신학”⁵⁾이란 논문에서 “어린이신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여 5-7세, 11-13세, 15-17세 연령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신정론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고 생각하는지를 정리하였다. 부허의 이 논문에 따르면, 아이들도 분명하게 신정론과 관련된 논리적인 핵심문제들을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고난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답변들도 제시했다. 그는 아이들의 대답을 세 유형으로 나눠 정리했다. 첫 번째 유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셨고 문제해결을 위해 작업가설로서 개입하신다는 견해, 둘째는 고난을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 그리고 셋째는 청소년 연령대에서 제시된 대답으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견해였다.⁶⁾

4) 지난 20년간의 어린이신학의 역사에 관한 간략한 소개는 Holger Dörmemann, “Kindertheologie’ - Ein religionspädagogisches Resümee nach zwei Jahrzehnten eines theologischen Perspektivenwechsels”, *Münchener Theologische Zeitschrift* 63(2012): 84-95 참조.

5) Anton Bucher, “Kinder und die Rechtfertigung Gottes? - Ein Stück Kindertheologie”, *Schweizer Schule* 79(1992): 7-12.

독일 개신교 측에서도 1994년 할레(Halle)에서 있었던 제8차 독일개신교총회(EKD-Synode)에서 어린이 예배에서 표현된 신학적 사유들을 진지하게 고찰하면서 어른들의 신학과는 독립된 어린이들의 고유한 하나님 생각과 표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되었고⁷⁾ 이와 더불어 개신교 측에서도 어린이 신학에 관한 작업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안톤 부허를 비롯한 학자들은 「어린이신학」(*Jahrbuch für Kindertheologie*)이라는 연간 학술지를 만들어 어린이신학과 관련된 많은 글들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어린이신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신학의 주제로서 어린이를 다루는 신학인가? 아니면 어린이의 흥미를 자아내는 자료들을 만들어 기독교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작업인가? 어린이신학이라는 개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안톤 부허에 따르면 어린이신학은 “어린이를 위한 신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린이의 신학”으로, 어린이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신학의 주제로 자리매김한다.⁸⁾ 이는 어린이를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충동에 이끌리고, 기분에 좌우되는”⁹⁾ 존재로 여겼던 통념과는 전혀 다른

6) Werner H. Ritter/ Helmut Hanisch/ Erich Nestler/ Christoph Gramzow, *Leid und Gott. Aus der Perspektive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6), 63-65에서 참조; 또한 신정론의 문제와 관련된 어린이신학적 작업으로는 Rainer Obertür, *Kinder fragen nach Leiden und Gott* (München: Kösel, 7. Aufl., 2011) 참조.

7) Ines Diekmann, *Kindertheologie im Kindergottesdienst. Praxisbezogene Konsequenzen für die Arbeit mit Kindern* (Norderstedt: Grin, 2008), 53.

8) Anton A. Bucher, “Kindertheologie: Provokation? Romantizismus? Neues Paradigma?”, in Anton A. Bucher, Gerhard Büttner, Petra Freudenberger-Lötz, Martin Schreiner(Hrsg.), *Jahrbuch für Kindertheologie Band 1: Mittendrin ist Gott: Kinder denken nach über Gott, Leben und Tod* (Stuttgart: Calwer Verlag, 2002), 9-27, 9.

관점과 방향의 작업이다. 부허에 따르면 이성보다는 충동에 좌우되는 어린이에 관한 기존의 생각은 어린이가 본성적으로 선하다고 보고 아동기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했던 루소에 이르러 바뀌게 된다. 하지만 루소는 어린이에게 종교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았다.¹⁰⁾ 이와는 달리 부허는 어린이의 종교성에 관심을 두었던 솔라이 어마허와 발달심리학의 영향으로 어린이를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된 장 피아제와 몬테소리의 관점에 동의하면서 어린이를 신학의 주체로 끌어올린 것이다. 기독교 신학의 작업에서 이제 어린이는 신학이 다뤄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신학적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신학을 수행하는 주체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도발적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어린이는 신학자일 수 있는가? 어린이가 신학의 능동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가? 어린이가 하나님에 관해 내뱉은 말들은 그대로 신학이 될 수 있는가?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신학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신학을 정의상 하나님(theos)에 관한 로고스(logos)라고 할 때, 과연 어린이의 로고스가 하나님을 포착하고 드러낼 수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어린이의 로고스에는 어른의 로고스가 이미 주입되어 있기에 어린이만의 고유한 로고스가 신학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덧붙여진다.

9) *Ibid.*, 12.

10) *Ibid.*; 신학의 역사와 연관해서 보면, 루터와 칼빈은 교리문답서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교육하도록 했으며 특히 19세기 신학에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호레이스 부쉬넬(Horace Bushnell)이나 솔라이어마허에게도 목회사역과 신학적 사유에서 어린이교육을 중요한 주제로 삼았다. Marcia J. Bunge ed. *The Child in Christian Thought*, 11.

앞서 신정론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부허가 연령별로 조사해 제시한 대답들도 사실 어떤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어른들이 설정한 전능이나 악, 죄, 보상이나 대가와 같은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는 신정론의 질문을 이미 어린이들도 자신의 질문들로 내면화했고, 그에 대한 어린이들의 대답도 유형적으로는 어른들의 기존 대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신학이 과연 기존의 신학과는 다른, 어린이의 고유한 신학이 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의 로고스가 이미 어른의 로고스에 의해 물들어 있고, 어린이의 신학적 언설이 기껏해야 기존 신학적 언설의 반복이라면, 굳이 어린이신학이 필요할까? 이때 어린이신학은 기존 신학을 오히려 정당화시켜 주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지 않을까?

이와 관련하여 개신교의 종교교육학자인 프리드리히 슈바이처(Friedrich Schweitzer)는 “어린이를 엄연한 주체로 보고 인정”¹¹⁾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안톤 부허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어린이에 의한 신학”이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신학”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신학”¹²⁾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어린이신학을 방법론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어린이에 의한 신학”은 어린이를 신학적 주체로 수용하는 신학적 성찰과 연관되며,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신학”과 “어린이를 위한 신학”은 일종의 교육학적 작업으로 어린이와의 대화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신학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제시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슈바이처의 어린이신학은 어린이를

11) 프리드리히 슈바이처/ 고원석·손성현 옮김, 『어린이와 함께 배우는 신앙의 세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12.

12) *Ibid.*, 55.

늘 어리게만 보고 가르침과 훈계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기존의 교육 관에 대해 반성하는 한편, 어린이를 신학 수행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에 동참하지만, 동시에 신학의 주체로서의 어린이가 갖는 문제점도 간과하지 않는다.

어린이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성서를 읽고 이해하고 해석한다. 이때, 어린이는 성서주석가가 생각하고 있는 성서본문의 의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의 해석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때, 어린이에게 성서해석의 정당성이 과연 부여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의 해석은 수정되어야 마땅한가? 이에 대해 슈바이처는 ‘올바른’ 해석을 찾는 것에서 한걸음을 물러나 “어린이신학은 어린이가 자신의 해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우선적으로 경청해야 함을 강조한다.¹³⁾ 또한 어린이의 성서해석이나 신앙의 표현이 잘못되거나 미숙한 것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기존의 정답과는 ‘다른’ 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¹⁴⁾

슈바이처는 소위 아동 낭만주의에 빠져서 어린이가 하는 모든 성서해석이 옳다고 인정하지는 주장에 동조하지는 않는다.¹⁵⁾ 하지

13) *Ibid.*, 19.

14) *Ibid.*, 36.

15) *Ibid.*, 176-177. “어린이신학이 이런 입장을 채택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방성과 임의성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텍스트가 ‘열려 있다’는 말은 무조건 ‘모든’ 해석이 가능하며, ‘모든’ 해석이 합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 수용미학이란 이런저런 해석을 그저 무수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수용미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텍스트가 원래 의도한 것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스펙트럼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아무런 텍스트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독자는 자기의 상상에 자기를 맡겨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독서 혹은 이해가 아니라 무제한의 판타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 그는 어린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나름의 논리로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어린이의 성서해석이 어른의 해석에 의해 무조건 수정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어른들이 어린이의 생각에 절대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어린이의 그런 이해 방식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또한 어린이의 특이한 성서해석을 통해 “여태껏 어른들에게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을 찾아내고 그것의 의미를 일깨우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는다.¹⁶⁾

전통적으로 신학이 성서를 일차적인 자료로 삼고, 그 안에 내포된 하나의 정답을 찾고자 했다면, 어린이신학의 성서해석학은 어린이의 관점에서 성서를 읽고 이해하고 때로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성서와 대화하는 어린이를 또한 신학의 자료로 수용함을 뜻한다. 어린이에 의해 읽혀지는 성서뿐 아니라 성서를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어린이가 어른에 의해 굳어진 신학적 사고에 일종의 균열을 가져다줌으로 신학적 사유를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때, 어린이는 신학의 주체만이 아니라 어른과 함께 신학하는 대화의 파트너로 이해된다.

이처럼 어린이의 성서해석에 대한 자율권과 정당성에 대한 인정은 성서 해석자¹⁷⁾ 또는 신학자로서의 어린이의 가능성을 열어준

16) 프리드리히 슈바이처/손성현 옮김, 『어린이의 다섯 가지 중대한 질문』(서울: 산티, 2008), 184.

17) 이에 대해서는 Peter Müller, “Da mussten die Leute erst nachdenken... - Kinder als Exegeten - Kinder als Interpreten biblischer Texte”, in Anton A. Bucher, Gerhard Büttner, Petra Freudenberger-Lötz, Martin Schreiner(Hrsg.), *Jahrbuch für Kindertheologie Band 2. Im Himmelreich ist keiner sauer. Kinder als Exegeten* (Stuttgart: Calwer Verlag, 2003), 19-30 참조

다. 슈바이처에 따르면, 어린이는 그저 무언가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말하고 있는 종교적 내용에 대해 반성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주체이다.¹⁸⁾ 물론 어린이가 종교적 표상과 사유에 있어 다른 사람의 영향을, 특히 가족이나 교회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어린이의 종교적 고백과 표현은 앵무새처럼 무반성적인 흉내 내기를 넘어, 주체적인 반성과 수용, 변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어린이신학과 연관해서 과연 어린이가 신에 관한 올바른 언설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성서 텍스트와의 대화보다는 훨씬 더 추상적일 수 있는 신에 관한 사유가 어린이에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은 어린이신학의 가능성과 관련된 핵심질문에 속한다. 기껏해야 신에 대해 또는 신앙에 대해 말하는 행위와 내용을 통해 어린이는 결국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단편적인 생각을 그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신학의 전통적인 정의처럼, 신에 대한 적실한 언설이 아니라 거칠게 표현하면 신에 대한 잡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어린이의 잡담이나 무의미한 생각들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말일까? 슈바이처는 이러한 문제제기의 정당성을 알았기 때문에 어린이에 ‘의한’ 신학만이 아니라 어린이와 ‘함께’하는 신학을 제시한다. 여기서 어린이는 단순히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과 존중의 대상이며, 상호대화가 가능한 인격체로 수용된다. 어린이신학이 참으로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신앙표현과 신학적 올바름 사이를 끊임없이 바장거릴 수밖에 없다. 어린이가 구술하는 모든 것, 그 자체가 곧바로 올바른 신학이 될 수도 없지만, 어린이의 관점과 생각을 배제한

18) 프리드리히 슈바이처/ 고원석·손성현 옮김, 『어린이와 함께 배우는 신앙의 세계』, 56.

채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신학적 언설도 ‘어린이’에겐 올바른 신학이 될 수 없다.

슈바이처에 따르면 비록 어린이신학이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심리적, 교육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야 하지만, 그럼에도 어린이신학이 더욱 발전하고 심화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신학은 어른들과 함께 하는 신학이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린이에 의한 신학으로부터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신학, 어린이를 위한 신학으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종교와 신앙을 주제로 한 배움을 위해서라면, 어린이는 오로지 다른 어린이하고만 이야기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어린이도 분명히 어른과의 대화를 원한다. 어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용적인 면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은 누가 뭐래도 꼭 필요한 일이다.”¹⁹⁾

이제 슈바이처에게 어린이신학은 어린이들의 신앙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연역해 낸 어떤 신학이 아니라, 신앙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 어린이 스스로가 사유하고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학으로 이해된다. 앞에서 인용한대로 어린이에 ‘의한’ 신학, 곧 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신학적 언설이 어린이를 ‘위한’ 신학이 되도록 어린이와 ‘함께’ 대화하는 과정이야말로 어린이신학의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신학은 어린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어른들의 신학적 개방성을 요구하며 어린이와 어른이 교학상장의 과정 속에서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되는 신학일 수밖에 없다.

19) *Ibid.*, 131-132.

III. 어린이의 신학적 본질 규정

어린이신학과 관련된 종교교육학적 접근은 비록 신학자로서의 어린이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학적 관점에서 어린이의 본성을 기술하진 못하고 있다. 신학사적으로 어린이의 본성을 생각할 때, 전통적으로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원죄론에 입각하여 어린이의 본성도 죄로 물들어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론에 입각하여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인 처벌을 정당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죄와 신체적 처벌을 자동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뱅은 어린이가 원죄에 감염되었다고 보았지만, 어린이에 대한 심한 처벌을 정당화하진 않았다.²⁰⁾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린이가 죄 속에서 태어나지만 실제로 몸으로 죄를 짓기에는 어리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 처벌이 아니라 “세례, 다른 이들의 모범사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타락한 의지를 하나님께 되돌려놓는 수단”으로서 강조하기도 했다. 칼뱅도 아우구스티누스와 마찬가지로 어린이가 원죄 속에 있다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어린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며 어른의 본보기”로 보았다.²¹⁾ 하지만 전적 타락설에 근거하여 어린이의 본성 속에 죄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본 칼뱅의 견해는 이후에 칼빈 주의자들과 개신교인들에게 영향을 주어 어린이를 혹독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도 했다. 구체적인 예로 캐나다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은 죄성에 관한 가르침을 가지고

20) Marcia J. Bunge ed. *The Child in Christian Thought*, 13.

21) *Ibid.*, 본문 인용은 14.

아이들을 혹독하게 대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원주민과 기독교인을 구분하기도 했으며 원주민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부모들도 아이들을 심하게 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²²⁾

주지하다시피 기독교 인간론은 죄인으로서의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해서도 말한다. 기독교 신학은 도대체 어린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인간의 근원적인 관계성을 은총-존재론적으로²³⁾ 정초하려는 칼 라너는 “아동기의 신학에 관한 사유”²⁴⁾라는 논문을 통해 신학적 관점에서 어린이의 본질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때, 그는 어린이를 자기고집에 사로잡혀 제멋대로 행동하는 고집불통의 폐쇄적 존재가 아니라 무한성을 향해 무한히 자신을 열어놓는 개방적 존재로 포착한다.

사실 안톤 부허도 라너에게서 어린이를 신학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발견했다. 라너는 이미 1949년에 “죽음의 신학에 관하여”²⁵⁾라는 논문에서 전문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 반성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자라고 했다.

22) *Ibid.*, 15.

23) 라너의 존재론은 단순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일방적인 존재론이 아니라, 스스로를 피조세계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계시적 은총과 상관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신학적 존재론이다. 따라서 라너에게 인간의 본질은 자신을 먼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규정되고 완성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찬수, 『인간은 신의 암호』 (왜관: 분도출판사, 2008), 특히 제2장 참조.

24) Karl Rahner, “Gedanken zu einer Theologie der Kindheit”, in *Geist und Leben* 36(1963): 104-114. 이 논문은 나중에 *Schriften zur Theologie* Bd. 7 (Einsiedln, 1966), 313-329에 재수록된다.

25) Karl Rahner, “Zur Theologie des Todes”(1949), in A. Jores(Hg.), *Über den Tod*, (Hamburg: Park-Verl., 1949), 87-112의 논문은 현재 *Sämtliche Werke* Bd. 9: *Maria, Mutter des Herrn* (Freiburg: Herder, 2004), 395-417에 수록되었다.

여기서 부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은 신학자다. (….) 원래 신학에서는 전문가와 아마추어 사이의 깔끔한 경계란 없다.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신학자로 호명된다”라는 라니의 문장을 인용하여 어린이신학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²⁶⁾ 그렇다면 도대체 신학적 관점에서 어린이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까?

1962년 10월에 어린이구호단체인 SOS-Kinderdorf의 초청으로 행한 강연에서 라니는 “창조주와 구원자의 의도에 따라 어떤 의미와 과제가 인간의 완성과 구원을 위해 아동기에 주어졌는지”를 밝히고자 한다.²⁷⁾ 이처럼 그는 신학적 관점에서 어린이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것과 인간 존재의 구원과 완성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라니에게 ‘아동기’²⁸⁾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시기를 뜻하지 않는다. 아동기는 성장 과정의 바탕이 되는 삶의 존재론적 시초이며, 동시에 삶이 추구하고 도달해야 할 존재론적 목적으로 이해된다.

물론 라니도 죄와 관련하여 어린이의 죄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께서 어린이를 향해 가지셨던 순수 신학적 시각을 어린이에게 적용한다. 어린이는 “어른들과는 달리 허세부리지 않으며, 명예에 무관심하고, 겸손하며, 편향되지 않는 모습의 표본”이다.²⁹⁾

26) Anton A. Bucher, “Kindertheologie: Provokation? Romantizismus? Neues Paradigma?” 10에서 재인용.

27) Karl Rahner, “Gedanken zu einer Theologie der Kindheit”, 104.

28) 독일어 *Kindheit*는 일차적으로 아동기를 뜻한다. 하지만 라니의 논문에서 아동기는 특정한 시기에 한정되는 시기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내재해 있는 인간존재의 본성을 뜻하며 동시에 인간존재가 구현하고 완성해야 하는 미래로 묘사된다. 또한 라니의 논문에는 *Kindschaft*, *Kindlichkeit*와 같이 교환가능하게 보이는 개념들이 섞여서 등장한다. 이는 각각 자녀됨과 어린이다움으로 번역했다.

29) *Ibid.*, 109.

라너에게 어린이는 여타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심연과 신비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향해 개방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존재의 시초로서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존재를 완성할 인간존재의 미래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동기는 지나가버린 시간의 한 단위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성취하는 시간이며 모든 시간에 앞서 미래로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다. 물론 아동기는 인간이 자기존재를 펼쳐나가는 출발선이다. 하지만 떠나면 과거가 되어버리는 그런 생물학적이고 산술적인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비 자체이신 하나님의 근원적인 시작에 개방”되어 있는 “신비”로 규정된다.³⁰⁾

따라서 라너는 아동기를 시적인 언어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아동기는 단순히 “어른이 되는 출발점”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오직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일어나는 인격적 역사의 시간”이며, “오직 이 곳이 아니면 어디서도 성장할 수 없는 사랑스런 꽃들과 잘 익은 열매들을 품고 있는 들판이다.”³¹⁾ 이를 다시 신학적 개념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아동기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 직접성을 갖는다. 아동기는 연령과 성숙과 장래의 한계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해 하나님의 절대성에 맞닿아 있다.”³²⁾ 따라서 어린이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절대적 직접성” 안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규정된다.³³⁾

30) *Ibid.*, 109.

31) *Ibid.*, 106.

32) *Ibid.*

33) *Ibid.*, 107.

하나님과의 직접성은 하나님의 무한한 개방성에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꽃피게 되는 인간의 종교성에 관한 표현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종교성의 순수한 형태를 우리는 어린이에게서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 안에 놓여 있는 “자기 존재의 근원적인 어린이다움을 경험하고 떠안고 올바르게 유지하며 그리고 그것의 무한한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인간의 종교성은 개화된다.³⁴⁾

라너에게 어린이다움은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성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본성의 순수한 형태로서 존재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는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 완성된다. “자녀됨은 개방성이다. 인간의 자녀됨은 무한한 개방성이며, 어른의 성숙한 자녀됨은 삶에 대해 단혀진 존재 경험에 반하여 용감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열어놓은 무한한 개방성이다.”³⁵⁾ 따라서 라너에게 ‘어린이’는 어리숙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한 평생 구현하고 완성해야 할 목적이 되며, 그 궁극적 성취를 하나님의 자녀됨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어린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라너는 실존하는 어린이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모든 아이들의 아동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존재론적 본질로서의 어린이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와 관련된 이러한 본질규정이 현실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의 본질적 측면을 보셨던 예수께서도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마태 18:31)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너에게 어린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근원적인 연관성을 깊이 있게 통찰하게끔 하

34) *Ibid.*, 113.

35) *Ibid.*

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완전히 개방한 어린이야말로 인간의 완성과 구원의 성취임을 알려주고 있다.

만약 우리가 라너의 어린이신학을 수용한다면, 어린이를 보는 우리의 시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윌리엄 워즈워드)일 뿐 아니라 ‘어린이는 인간이 성취해야 할 미래와 목적’이다. 만약 기독교신학이 원죄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신비의 관점에서 어린이를 바라본다면, 어린이는 버리고 떠난 생의 뒤편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직접성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터전이면서도 여전히 도달해야 할 미래이라 할 수 있다.

IV. 어린이신학의 교의학적 전개

만약 우리가 어린이의 관점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철저히 어린이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유한다면, 하나님은 어른들이 흔히 말해왔듯이 전능하신 아버지로 경험될까 아니면 어린이와 함께 놀고 이야기하는 친구 어린이로 경험될까? 90년대 중·후반 독일 학계에서 어린이신학에 관한 논의가 주로 종교교육학 영역에서 진행될 때,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98년에 이신건은 교육학적 관심이 아니라 이론신학적 사유 속에서 “하나님을 어린이로 생각하기”라는 부제를 단 『어린이 신학』을 출간했다.³⁶⁾ 약자를 대변하는 신학으로 흑인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이 세상에 등장했지만, 어린이가 무차별적으로 학대받는 시대에 정작 모든 약자 중에 약자인 어린이

36) 이신건, 『어린이 신학』(서울: 한들, 1998).

를 대변하는 신학이 없다는 사실에 그는 주목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부장주의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여성신학적으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감히 어린이라고는 부를 수 없는지”를 자문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안에서 어린이의 얼굴도 지니고 계시다는 흔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의 스승 몰트만에게 편지로 알린다.³⁷⁾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스승의 독려로 힘을 얻은 그의 어린이신학은 어린이가 학대당하는 구체적인 현실을 염두에 두고서 “학대받는 어린이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신학적 물음을 던지며 세상에 나왔다.³⁸⁾

이 질문은 사변적인 신정론의 물음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린이를 특정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님의 전능과 무능,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현대신학자들의 하나님 이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기존의 답변 속에서는 학대받는 어린이를 위로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특정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신정론의 물음과 이에 상응하는 사변적인 답변에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스승 몰트만의 저서에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어린이 예수를 발견한다. 하지만 그는 이제 몰트만을 넘어 어린이가 예수에게서 삼위일체론의 속성교류를 따라 하나님을 어린이로 사유할 가능성을 모색한다.³⁹⁾ 어린이로서의 예수를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37) *Ibid.*, 13.

38) *Ibid.*, 제2장.

39) 몰트만에 대한 수용과 비판은 *Ibid.*, 67. “몰트만은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이로 경험하는 예수의 자기 이해가 자비로운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관해서는 더 이상 깊이 성찰하지 않는다. (...) 몰트만은 예수의 자기 이해, 자기 경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 얼굴은 더 이상 근엄한 가부장적인 남성이 아니라 어린이와 함께 놀고 즐거워하는 어린이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는 다시 반문한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에게서 고난당하는 민중의 일그러진 얼굴, 차별받는 여성의 모성적인 얼굴, 억압당하는 흑인의 검은 얼굴, 파괴당하는 여성의 모성적인 얼굴, 파괴당하는 자연의 녹색 얼굴 등을 경험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학대받는 어린이의 얼굴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인가?”⁴⁰⁾

이신건의 어린이신학은 어린이의 신학적 가능성이나 주체성을 내세우거나 어린이의 본질을 드높이기 보다는 오히려 ‘학대당하는 어린이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어린이가 누구나’ 하는 인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나’ 하는 신론과 연관된 교의학적 질문이 제기된 것이다.⁴¹⁾

그렇다면 힘없고 자격없는 어린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로 생각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시 않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린이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어떻게 가능한가? 그는 세 가지 관점에서

진지하게 묻지 않는다.”

40) *Ibid.*, 74.

41) 물론 그도 어린이가 누구인지를 신학적으로 규정한다. 이때, 그도 어린이를 향한 예수의 시선을 수용한다. 그에 따르면, 어린이의 학대원인은 어린이가 단순히 약자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에 따라 가치없고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는 사회적으로 가치없는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 공적이 없는 존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드러낸다. 예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어린이를 억압하여야 할 유치한 인간상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모든 인간들이 본받아야 할 성숙의 본래적 표본으로 제시”(Ibid., 108)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린이의 편에 계심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어린이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는 실존적인 관점에서 그렇다. 우리에게 ‘어린이가 되라’ 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도 어린이가 되실 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는가 묻는다.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라 어린이의 친구로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예수를 볼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셋째는 삼위일체론적 관점이다. 하나님의 상호 순환과 상호 침투의 교리(*perichoresis*)에 따라 어린이 예수에게서 어린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⁴²⁾

하나님을 어린이로 생각한다면, 어린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삶에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린이 하나님은 확대당하는 어린이에겐 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어린이 친구가 될 것이며, 어린이를 확대하는 어른들에게 그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하는 어린이 심판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린이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린이와 더불어 기뻐하고 환대하셨던 어린이 하나님과의 사귄 안에서 우리 자신도 진정 어린이의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⁴³⁾ 이처럼 이신전은 자신의 어린이신학을 통해 단순히 “신 개념의 혁명적인 변화”⁴⁴⁾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린이 해방을 위

42) *Ibid.*, 131-140.

43) *Ibid.*, 139-140. “어찌하여 우리는 예수처럼 하나님의 얼굴에서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어린이 예수처럼, 어린이처럼 그리고 어린이와 같이 된 사람들처럼 어린이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로써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귄을 나누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으며, 만인을 이 신비한 사귄으로 초대하는 일에도 실패하지 않았을까?”

44) *Ibid.*, 75.

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⁴⁵⁾

V. 나가는 말

아동학대와 유기가 극심한 시대에 기독교 신학이 어린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업은 무엇일까? 어린이의 종교적 생각과 진술을 직접적으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⁴⁶⁾, 어린이가 신학을 직접 저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어린이신학도 어린이와 함께, 어린이를 위해 신학을 수행하는 어른들의 신학일 수밖에 없다. 어린이신학은 어린이 혼자 할 수 있는 신학이 아니라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신학적 작업이다. 하지만 어린이 신학은 기존의 어른들의 신학과는 달리, 어린이와 함께 대화하는, 어린이를 위한 신학이어야 한다. 이때, 어린이와 함께 대화하는 신학은 어린이의 언어적, 비언어적 신앙적 표현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신앙에 대한 그들의 질문과 답변, 그들의 비언어적 표현까지 깊이 통찰하면서 어린이들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경청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어린이를 위한 신학을 통해 어린이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신학은 기존의 문자화된 로고스를 넘어 어찌 면 어린이다운 방식으로, 비언어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을 매개로 할

45) *Ibid.*, 212.

46) Wilfried Härle, “Was haben Kinder in der Theologie verloren? Systematisch-theologische Überlegungen zum Projekt einer Kindertheologie”, in Anton A. Bucher, Gerhard Büttner, Petra Freudenberger-Lötz, Martin Schreiner(Hrsg.), *Jahrbuch für Kindertheologie Band 3. Zeit ist immer da. Kinder erleben Hoch-Zeiten und Fest-Tage* (Stuttgart: Calwer Verlag, 2003), 11-27.

준비도 갖춰야 한다.⁴⁷⁾

이런 점에서 어린이신학은 어린이가 배제된 어른들의 신학에 비해, 어린이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신학적 변형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와 대화하면서 어린이로부터 신앙세계에 대한 물음을 들을 때, 어른들의 사유와 언어가 간과하고 포착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차원이 열릴 수도 있다. 이것은 어린이신학이 어른들의 신학에 주는 중요한 자극이다. 어린이신학이 어른들의 신학과는 다르게 제공하는 대답에만 관심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어린이들이 제기하는 색다른 질문에 귀 기울일 때, 어린이신학의 자극은 지극히 크다고 하겠다.

어린이를 위한 교회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의 질문은 우리보다 날카롭고, 우리의 대답은 아이들의 기대에 못 미칠 때가 많다. 아이들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 구체적이고 더 실질적인 대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질문에 있어 아이들은 한발 앞서 가고, 대답에 있어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걷는다. 비록 그들의 로고스가 전문신학자들의 로고스만큼 세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사유를 일상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날 어린이신학은 적어도 기존의 어른들에 의해 수행된 학문적인 신학에 도전을 줌으로써 기존의 아카데미한 신학과 어린이의 생활세계에 뿌리를 둔 일상의 신학을 상호 연관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더구나 어린이신학은 어른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삶의 거대한 질문에 대해 어린이와 함께 논의하는 것

47) 어린이신학의 교육학적 적용에 관해서는 제롬 베리만/ 양금희, 김은주 옮김, 『가들리 플레이』(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참조; 남은경,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어린이와 경건놀이”, 『기독교교육 학습공동체』(서울: 요단, 2014), 241-290 참조.

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증명하고 있다.⁴⁸⁾ 이처럼 어린이신학은 현실과는 무관한 사변의 고공비행을 하던 강단신학으로 하여금 어린이와 대화하고 어린이로부터 경청함으로써 어린이의 현실에 적합한 삶의 신학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다.

오늘날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인권 유린의 사건들에 직면하여 어린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이제 어린이를 사고나 행동에 결함이 있는 어린 아이로 볼 것이 아니라 <아동권리헌장>에 명시된 대로 어른에 의해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당당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이때, 어린이는 마냥 가르침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어른과 견해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파트너가 된다. 아이들에겐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함께 놀고 이야기하고 공감해 줄 친구가 필요하다. 어른은 먼저 가르치려 하지 말고 아이들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잘 듣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린이신학은 어린이의 의사표현과 생각을 존중하고 경청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린이에 관한 신학적 인식의 전환을 수반한다. 이런 점에서 라너의 어린이신학은 일종의 신학적 어린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어린이’는 인간존재의 시작이면서도 도달해야 할 목표로서 추구되어야 할 인간존재의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어린이만 어린이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어린이로서 자신의 어린이다움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보존해야 할 과

48) Friedhelm Kraft/Martin Schreiner, “Zehn Thesen zum didaktisch-methodischen Ansatz der Kindertheologie”, in *TheoWeb* 6(2007): 21-24, 21. - Christian Grehlein, *Praktische Theologie* (Berlin/Boston: de Gruyter, 2. Aufl., 2016), 93-94에서 참조.

제를 안고 있다.

이신건의 어린이신학은 비록 어린이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구성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어린이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사고하려고 한 어린이를 위한 신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힘과 폭력의 구원자에 경도되어 있는 우리시대의 종교적이며 세속적인 환상은 ‘하나님을 어린이로 생각하기’에 의해 그 허망함과 잔혹함이 폭로되게 하며 구체적으로 학대당하는 어린이의 모습 속에서 세속적 힘과 폭력에 의해 버려진 어린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며 또한 이러한 폭력에 가담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린이의 관점에서 교의학적 주제들을 재구성해 볼 가능성을 얻게 된다. 예컨대 과연 어린이에게 기독교의 창조론, 구원론, 종말론 등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으며,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지를 물어 볼 수 있을 것이다.⁴⁹⁾

아동학대와 인권 유린의 시대에 기독교 신학에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신학적 사유의 전환과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신학의 형성이다. 어린이에 의한 신학,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신학, 어린이를 위한 신학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린이와 어른은 하나님의 어린이로서 서로의 얼굴에서 친구 어린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49) 슈바이처는 어린이신학이 전개해야 할 기본적인 5가지 주제를 제시한다.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 나 자신에 대한 질문. (2)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 - 전체의 의미에 대한 질문. (3) 내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 하나님에 대한 질문. (4)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의롭게 행동해야 하는가? - 윤리적 행동에 대한 질문. (5) 많은 어린이들은 왜 알라를 믿는가? - 타종교에 대한 질문.” 프리드리히 슈바이처/ 고원석, 손성현 옮김, 『어린이와 함께 배우는 신앙의 세계』, 55-56; 프리드리히 슈바이처/ 손성현 옮김, 『어린이의 다섯 가지 중대한 질문』은 이 질문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 남은경.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어린이와 경건놀이.” 『기독교교육 학습공동체』. 서울: 요단, 2014: 241-290.
- 베리만. 제롬./ 양금희. 김은주 옮김. 『가들리 플레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 슈바이처, 프리드리히./ 고원석. 손성현 옮김. 『어린이와 함께 배우는 신앙의 세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슈바이처, 프리드리히./ 손성현 옮김. 『어린이의 다섯 가지 중대한 질문』. 서울: 산티, 2008.
- 이신건. 『어린이 신학』. 서울: 한들, 1998.
- 이찬수. 『인간은 신의 압호』. 왜관: 분도출판사, 2008.
- Ritter, Werner H./ Hanisch, Helmut./ Nestler, Erich./Gramzow, Christoph. *Leid und Gott. Aus der Perspektive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6.
- Bucher, Anton A. “Kindertheologie: Provokation? Romantizismus? Neues Paradigma?” in Bucher Anton A./ Büttner, Gerhard./ Freundenberger-Lötz, Petra./ Schreiner, Martin. (Hrsg.). *Jahrbuch für Kindertheologie. Band 1: Mittendrin ist Gott: Kinder denken nach über Gott, Leben und Tod*. Stuttgart: Calwer Verlag, 2002, 9-27.
- _____. “Kinder und die Rechtfertigung Gottes? - Ein Stück Kindertheologie”. *Schweizer Schule* 79(1992): 7-12.
- Bunge, Marcia J. ed. *The Child in Christian Thought*. Grand Rapids/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1.
- Diekmann, Ines. *Kindertheologie im Kindergottesdienst. Praxisbezogene Konsequenzen für die Arbeit mit Kindern*. Norderstedt: Grin, 2008.
- Dörnemann, Holger. ““Kindertheologie”- Ein religionspädagogisches Resümee nach zwei Jahrzehnten eines theologischen Perspektivenwechsels.” *Münchener Theologische Zeitschrift* 63(2012): 84-95.
- Grehlein, Christian. *Praktische Theologie*. Berlin/Boston: de Gruyter, 2. Aufl., 2016.
- Härle, Wilfried. “Was haben Kinder in der Theologie verloren? Systematisch-theologische Überlegungen zum Projekt einer Kindertheologie.” in Bucher Anton A./ Büttner, Gerhard./ Freundenberger-Lötz, Petra./ Schreiner, Martin. (Hrsg.).

Jahrbuch für Kindertheologie Band 3. Zeit ist immer da. Kinder erleben Hoch-Zeiten und Fest-Tage. Stuttgart: Calwer Verlag, 2003, 11-27.

Müller, Peter. “Da mussten die Leute erst nachdenken ... - Kinder als Exegeten – Kinder als Interpreten biblischer Texte.” in Bucher Anton A./ Büttner, Gerhard./ Freundenberger-Lötz, Petra./ Schreiner, Martin. (Hrsg.). *Jahrbuch für Kindertheologie. Band 2. Im Himmelreich ist keiner sauer. Kinder als Exegeten.* Stuttgart: Calwer Verlag, 2003, 19-30.

Obertür, Rainer. *Kinder fragen nach Leiden und Gott.* München: Kösel, 7. Aufl., 2011.

Rahner, Karl. “Gedanken zu einer Theologie der Kindheit.” *Geist und Leben* 36(1963): 104-114.

_____. “Zur Theologie des Todes.” in Jores, Arthur(Hg.). *Über den Tod.* Hamburg: Park-Verl., 1949, 87-112.

한글 초록

아동학대 시대의 어린이신학

아동학대와 아동인권 유린의 시대에 직면하여 오늘날 기독교 신학이 어린이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근원적으로 수행해야 할 작업은 무엇일까? 기독교 신학은 단순히 윤리적 지시나 강령만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신학적 작업을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와 함께 어린이에 대한 근원적인 사고의 변혁을 위해 기독교 신학은 신학적 어린이론을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해서 독일 교육신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어린이신학을 소개함으로써 어린이를 신학에 수용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곧 어린이신학의 방법론을 살펴본 다음, 칼 라너가 제시한 어린이에 관한 신학적 본질규정을 통해 신학적 어린이론을 수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의 관점을 염두에 둔 교의학적 작업을 소개함으로써 어린이신학의 향후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러한 어린이신학은 어린이를 신학적 사유의 주제와 사유의 주체로 참여시킴으로써 그동안 배제되었던 어린이의 목소리를 어린이의 관점에서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신학은 기존의 어른들의 신학과는 달리, 어린이와 함께 대화하는, 어린이를 위한 신학이어야 한다. 이때, 어린이와 함께 대화하는 신학은 어린이의 언어적, 비언어적 신앙적 표현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어린이와 대화하면서 어린이로부터 신앙세계에 대한 물음을 들을 때, 어른들의 사유와 언어가 간과하고 포착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차원이 열릴 수도 있다. 이것은 어린이신학이 어른들의 신학에 주는 중요한 자극이다. 어린이신학이 어른들의 신학과는 다르게 제공하는 대답에만 관심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어린이들이 제기하는 색다른 질문에 귀 기울일 때, 어린이신학의 자극은 지극히 크다고 하겠다. 아동학대와 인권 유린의 시대에 기독교 신학에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신학적 사유의 전환과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신학의 형성이다. 어린이에 의한 신학, 어린이와 함께 하는 신학, 어린이를 위한 신학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린이와 어른은 하나님의 어린이로서 서로의 얼굴에서 친구 어린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ology of Children in the Age of the Child
Abuse**

Park, Young-Sik

Assistant Professor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Bucheon, Korea

What should Christian theology do for the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age of the child abuse and the fundamental violation of children's rights? Is Christian theology not simply to make the ethical instructions or teaching, but does it especially need to construct theological works that can be done with children? In addition to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inking about the children, we should rethink and reorientate what Christian theology has spoken of it. This paper presents theological perspective about children and new theological movements in the German religious education named as 'Kindertheologie' (theology of children) since 1990's, regarding possibilities to accept children as theologian. And then we will go to the next important theme about the nature of the child in the theological perspective by Karl

Rahner, in which we will find the childness in the humanity that gives important insights in the theological and practical ways. The child is not the finished past, but the coming and blooming future in the process of humanization and religious salvation. Finally, we will present a dogmatic utterance of God in relation to the concrete situation of the child abuse. This theological thinking of children gives new and another ways of theological construction to the theology of adults. A theology of children accepts children as the subject and dialogue partner of theology and opens the door to horizon that the theology of adult cannot find. A theology of children gives opportunity to listen to a new and strange question that can give an theological insight. The theology of adult must be sensitive to the logos of the children in the verbal and non-verbal forms, which is an important impetus to theology of adults. In the age of child abuse, Christian theology is urgently called into the re-formation of theology with children. A theology of children in this study is a theology by children, with children and for children. We can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children in the theological construction and realize God in the face of the child, when we as adults meet children as friends to go with.

|| 주제어 Keywords ||

어린이신학, 아동기신학, 어른들의 신학, 아동학대, 어린이 신학자

Theology of Children, Theologie der Kindheit, Theology of adults, Child abuse, Child as theologian

- 투고접수일: 2016년 09월 23일
- 심사(수정)일: 2016년 10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6년 11월 14일